소통의 마당
고려월보
언제나 처음처럼, 내 몸같이, 내 가족같이

제2017-1호 2017년 9월호 www.goryeoh.com

2007년 개원 당시 모습

2017년 현재 모습

“언제나 처음처럼, 내 몸같이, 내 가족같이” 라는 설립이념으로 시작한 고려요양병원

포항 시내에서 20여 년간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던 이호근 병원장은 본인이 태어난 고향인 포항에서 그동안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요양병원을 현재 위치에 개원하였다. “언제나 처음처럼, 내 몸같이, 내 가족같이” 라는 설립이념은 병원장의 마음이 담긴 우리병원의 미션이다. 우리병원에 오시는 어르신 한분 한분을 가족같이 모시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고민하고 노력한다. 이호근 병원장은 언제나 직접 손톱깎이를 들고 다니며, 어르신들의 손발톱을 깎아 드리고, 생신잔치때에는 직접 어르신들께 노래도 불러드리는 등 어르신들이 내 집같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포항을 대표하는 고려요양병원

2007년 개원 당시 고려요양병원은 98병상으로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증축 등을 통해 현재 200여병상을 운영중에 있으며, 포항을 대표하는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려요양병원은 인증원에서 인증한 공인된 요양기관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병원 적정성평가에서도 5회 연속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된 우수 의료기관이다. 2013년도에는 전국 20위권 안에 드는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병원의 우수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병원 가족들은 병원의 발전과 환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고려요양병원

고려요양병원은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아기자기한 정원을 가지고 있다. 매일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 정원 산책로를 걸으시며,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며, 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께서는 함께 야외에 나와 담소를 나누기도 하신다. 날씨가 좋은 화창한 날에는 병원정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순간 유럽의 고급 노인요양시설에 와있다는 착각을 할 때도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과 병원가족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게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개원 10주년 기념 고려월보 발간

2017년 9월은 우리고려요양병원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에 맞춰 고려요양병원은 병원 가족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 보호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고려월보를 발간하게 되었다. 병원소식지인 고려월보는 병원직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게는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이야기들과 병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를 제공하여 병원가족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병원 내 정보통 역할을 기대해본다. 또한 다른 신문과 달리 글씨크기를 크게 하여 발간하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도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병원소식지가 되도록 병원가족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해 본다.

– 글 : 이준엽 (고려요양병원, 기획실장)

고려월보 발간 축하 인사말

올해처럼 무덥고 지겹던 여름도 지나고 입추를 지나 가을 문턱에 들어선 이때 우리병원이 개원한지 벌써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병원도 언제나 처음처럼, 내 몸같이, 내 가족 같이라는 설립이념으로 병원 증축,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적정성평가 및 4년마다 받는 인증제 조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병원이 점차 체계적이고 우수한 병원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우리병원 가족과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보호자들과 진솔하게 의사소통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고려월보를 발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병원가족 및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고려월보가 탄생하게 끔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글: 이호근 (고려요양병원, 병원장)

고려요양병원 전경

2017년 4월초 고려요양병원 정원 전경

2주기 인증... 그 후

인증제도입 배경 및 의미

의료기관 인증제의 도입배경을 보면 서열화 된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과잉경쟁이 발생하고 강제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관리 동기 부재, 평가 전담조직 및 인력 부재로 인한 전문성과 객관성 미흡, 시설이나 인력 등 구조적 측면 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으로 의료기관 평가 제도의 문제점 해소 및 선진화를 위해 인증제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의료기관 인증제의 목표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만든 규정에 따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유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ISQua국제인증(국제의료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인증기준을 개발하였기에 의료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이 적정수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매년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 보고하여야 하며,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조사 결과의 주요 지표 입력을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결국 의료기관 인증제는 공급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켰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관리 문화 정착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직원 대상의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서 간 의사소통 촉진 등 조직문화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1주기 인증이후 2주기 인증 기준의 변화

1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분석을 살펴보면 44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시행한 결과 인증조사 후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은 손 위생 수행, 의료진간의 정확한 의사소통, 환자확인 절차, 낙상관리이다.

1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는 인증제 조기정착을 위한 낮은 수준의 인증기준이었으며 인증제 초기임을 감안하여 기준 적용 조사대상기간을 짧게 설정, 점수화 기준 및 인증등급 결정 수준이 낮고 기준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조사위원간 편차 발생, 질 향상·환자안전 및 감염관

2주기 인증 총평이후 단체사진

리체계구축 미비, 화재 및 시설 유지관리 내용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주기 인증주기(4년) 만료시점인 2016년 12월이 도래하면서 1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 운영결과 단점보완이 필요, 안전관련 사회적 문제(안전관련 시설환경관리, 메르스, 취약환자관리 등)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유도 및 현황 파악 필요(환자안전법 관련)로 의료기관 ·보건의료정책담당자 등 의견 반영을 통한 인증기준을 재설계하게 되었다.

1주기 인증기준과 비교하여 변화된 2주기 인증기준을 보면 기준개정 원칙은 1주기 기준틀을 유지하되 전체 조사항목을 확대하여 시범항목→정규항목 전환 & 필수 조사항목 확대, 과정(P) 및 성과(O) 조사항목 확대, 점수화 체계 및 인증등급 결정수준 조정(유·무~>상·중·하),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조사표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조사 이후 인증의료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중간 자체조사 방법을 보완, 중간현장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려요양병원의 2주기 인증을 마치며...

고려요양병원의 2주기 인증준비는 어려운 과제였다. 1주기 기준에 대한 충실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된 2주기 인증은 규정만들기부터 벽에 부딪쳐 담당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했다. 1주기 규정과 2주기 규정의 수준 차이로 한번,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급격한 수행변화로 인해 한 번 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규정은 고려요양병원만의 규정을 탄생시키기 위해 수십 차례 수정, 또 수정을 거듭하였으며, 마지막까지도 우리만의 규정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2주기 인증준비 과정에서 나는 고려요양병원의 미래를 보았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직장에서 무엇보다 상생이 중요하며 직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특히나 직원 개개인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져야하는 병원환경의 특성상 자발적인 직원참여 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겠는가! 인증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직원 모두가 뭉쳐 일에 임하는 모습,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을 이끌어 가기위해 노력하는 부서장들의 모습, 직원들의 노고를 달래주고 격려해주고자 하는 경영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우리 고려가족들 정말 멋지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내게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물어본다면, 직원들의 격려 어린 말들이라고 하고싶다. 많은 직원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 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또 다른 일은 없나요?' 하시며 돕기를 자처하여 그 감동의 힘으로 힘들었던 인증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고려요양병원을 꿈꿔본다.

우리 고려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나의 작은 노력이 직원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한 직원의 마음이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위하여...

– 글 : 김미희 (고려요양병원, QI전담간호사)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 및 소통프로그램 소개

환자의 행복... 보호자와의 소통에서부터 시작한다.

고려요양병원에서는 언제나 보호자들이 믿고 병원에 어르신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병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호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입원환자가 병원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보호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한다. 그리하여 고려요양병원은 2016년부터 초기입원환자 입원시 병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 위해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의료진이 환자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인증원에서는 환자초기평가와 영양평가를 신환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고려요양병원은 더 나아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입원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초기입원환자가 병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환을 대상으로 병원생활에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초기 입원환자 상담일지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고려요양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

최초에 진행하였던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환자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일지로 구성하였다. 이는 신환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병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이해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환자가 병원생활을 할 때 환자의 과거 생활환경을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 초기입원환자 분석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 8월경 TF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형식의 상담일지를 구성해 3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다. 새로 만들어진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는 신환을 대상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취합한다. 입소후 첫째날은 환자상태, 둘째날은 병원생활 정도, 셋째날은 병원 적응도로 나누어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있다.

일 자	주요내용
1 일차(환자상태)	진단명, 신체상태, Life Story(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상담), 인지능력 등
2 일차(병원생활 정도)	주요문제, 입소동기, 병원에 대한 인식, 식사량, 수면정도, 기본심리상담 등
3 일차(병원 적응도)	병원적응도, 치료과목, 식사량, 수면정도, 향후 고려사항 등

표1.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 내용

이와같은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를 통해 짧은 시간안에 환자에 대해 이해하고, 환자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있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생활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렇게 작성된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를 단순히 환자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호자에게도 환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보호자 소통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고려요양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통프로그램 : 보호자와의 소통이 곧 환자와의 소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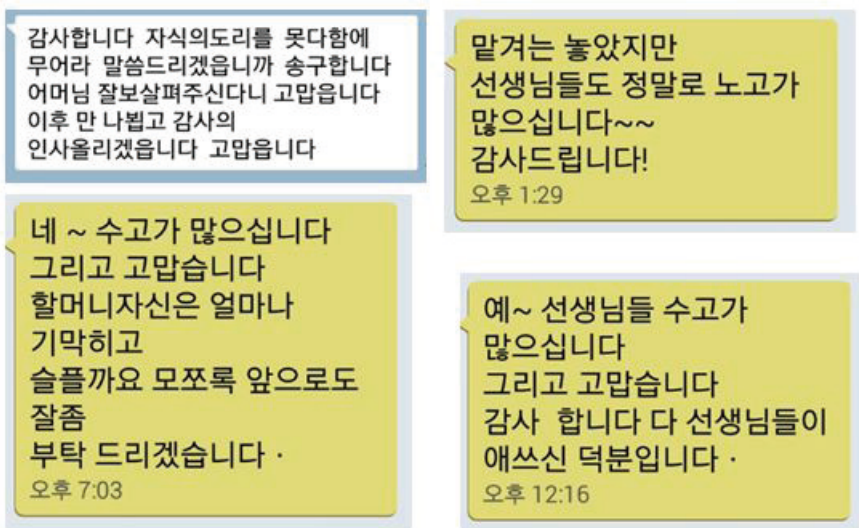
소통프로그램 운영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기에 앞서 고려요양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통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우리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통프로그램은 신환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8주동안 보호자에게 환자의 병원생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드리는 알림서비스이다.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병원과 보호자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1주차에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문자를 제공하고, 2~6주차에는 어르신의 병원생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이후 7주차에는 담당간호팀장이 환자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8주차 프로그램 종료 메시지와 함께 신환대상 보호자 소통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처음 고려요양병원에서 소통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작년 8월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를 재구성하기위해 TF팀을 구성하여 3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을 때이다. 당시 3개월간 진행하였던 소통프로그램과 현재의 소통프로그램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몇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내용구성을 쉽게 하였다. 기존 시범사업을 실시했을 당시에는 의료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실제 환자 보호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르신이 병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우선이라 판단하여 전반적인 병원생활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가독성을 높였다. 실제 시범사업 진행시 단순 텍스트형식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일반 광고문자와의 차별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시범사업이후 메시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소통프로그램을 진행 시에는 환자의 식사량, 수면의 정도, 병원생활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기호화 하여 보호자들이 쉽게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보호자 소통프로그램이 간호팀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업무효율성 문제, 보호자 의학적 진단내용 제공 정도의 문제가 있어 사회복지차원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소통프로그램에서의 전문성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7주차에는 담당간호팀장이 환자에 대한 소견을 반영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감사의 문자로 통한 작은 보람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보호자분들이 감사의 답변을 보내올 때이다. 매주 보호자들에게 소통프로그램 보고서를 발송 하고나면 몇 몇 보호자분들께서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병원에서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보내곤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직접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병원 모든 가족분들의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한다.



보호자님께서 발송한 감사의 문자

병원-환자-보호자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발전

아직까지 초기 입원환자 상담일지나 소통프로그램은 걸음마 단계이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환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아직도 발전 중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초기입원환자 상담일지와 소통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병원,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통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병원 가족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보호자들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우리병원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된다면 본 프로그램들은 우리병원에는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글 : 이준엽 (고려요양병원, 기획실장)

초기입원환자 상담 모습

보호자 소통프로그램 상담 모습

인터뷰 – 보호자와의 만남

올해로 고려요양병원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열심히 달려온 10주년을 기념하여 보호자 한분을 선정하여 우리병원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어르신과 보호자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보호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를 가진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보호자 한분을 선정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실 분은 우리 고려요양병원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어머니 뵈러 오시는 신금연 어르신의 보호자 진순리님이다.

신금연 어르신 젊은 시절 사진

안녕하세요. 매일 얼굴 뵙지만 오늘은 더 반갑습니다.

Q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뭐부터 말해야 되죠? (하하하) 제가 태어난 곳은 시내 포항시네마 영화관 가는 실개천 중간지점쯤 2층 건물이였던 것 같아요. 현재는 남구청 부근에서 중화요리식당을 2대째 66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시 화교협회 회장직을 맞고 있습니다.

Q : 남구청 앞에서 부산각 중화요리 전문점을 하신다는데 인터넷도 검색해 봤더니 맛집으로 추천도 되어 있고, 원무행정과에 이동우주임님도 오랜 단골이라면서 칭찬하던데... 중화요리를 하게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A : 특별한 계기는 없고, 제가 공부하는 것을 싫어해서 특별히 할 것은 없고, 25살 때 감기약물중독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어머니가 저의 병간호를 말로는 다 못할 정도로 잘해주셔서 제가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하하) 그때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놀고, 열심히 장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여 부모님께 "제가 장사를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Q : 저희 병원에 1년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어머니 뵈러 오신 듯한데, 바쁜일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텐데, 지난번에 "두 번 오지 못해 안타깝다" 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2년전 돌아가신 저의 시어머니 생각도 교차 하면서 자신이 부끄러워 지더라고요. 어떤 어머니셨어요?

A : 저의 어머니요 한마디로 천사지요. 처녀때부터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동네 어른들 맛있는 음식 다 챙겨주시고, 어머니 시절에는 길가에 정신이상 여성들도 들어있었지요. 그런분들 다 밥 사주시고, 미용실에 데려가서 머리이발 다해주시고, 당시에 보이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다 밥을 사주시고, 추운 사람들에게는 옷을 사주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2박3일 종일 인터뷰하셔도 끝이 없을 거예요. (하하하하)

Q : 어머니와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A : 20여년전에 어머니께서 갑상선이 좀 안 좋으셔서 한 달에 한번씩은 꼭 대구 동산병원에 가셔서 검사도 하시고, 약도 탔지요. 병원에 내원하고는 꼭 대구에서 유명한 교동시장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길치인 제가 운전을 해서 어머니와 둘이서 오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곤 했어요. 한번씩 어머니가 깜박 주무시면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꼭 경주, 포항 진입로를 지나쳐 언양까지 가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말씀은 "아들아 언양가서 둘이 불고기나 실컷 맛있게 먹고 가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집에 가자. 집에 전화해주어라. 오늘 또 길 놓쳤다고..." 참 멋있는 어머니지요.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Q : 어르신 처음 오셨을 때 기억이 나네요. 우리 병원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습니까?

A : 이호근 병원장님은 제가 총각 때부터 잘 아시는 훌륭한 의사이십니다. 평소에 원장님은 참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다 생각하고 있어 이호근 원장님이 운영하는 고려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강공단에 아시는 선생님 한 분께서도 김숙자소장님을 소개해 주셔서 두말하지 않고 바로 어머니를 고려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Q : 매일같이 오셔서 보셨기에 그 어떤 분 보다 우리 병원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병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고려요양병원은 산과 정원, 꽃, 나무, 주위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병원시설도 너무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선하고 따뜻한 분들이 원내에 여러분이 계셔요. 이호근병원장님, 김희숙원장님, 김숙자소장님, 주해동과장님, 전양례간호팀장님, 김경희주임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한분 한분 호명은 다 못하지만 이런분들이 원내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셔주시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어머니를 고려요양병원에 참 잘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고려요양병원 개원10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금연어르신이 불편함 없이 병원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글 : 백민조 (고려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신금연 어르신과 아들 진순리 사장님의 추억사진

어르신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213호 김영식어르신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관심과 이해와 존경과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방언, 예언 ,믿음, 구제의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이더라.

다른 모든 은사는 일시적인 것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패하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계속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은사들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훨씬 크고 위대하다. 사랑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사랑의 결론은 참고 견디는 것. 사랑은 오래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다. 강인하다고 여겨지는 남성적 리드는 고도의 친화력과 유연성을 갖춘 여성적 리드를 융합할 때 비로써 양 날개로 완성된다. 조직의 성장은 물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냐 한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지혜를 묵상함으로 새로운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할머님 말씀이 맞다. 아빠가 대학 포기하고 술 많이 마셨을 때 할머니께서 예배소서 5장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비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구주 그리스도를 경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갈라디아서 5장22장 오직성력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너니라. “링컨의 말씀처럼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불안이 엄습할 때 마다 기도로 버틴 대통령, 정주영 전 현대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사랑하는 아들 대웅아 성공을 위해서 근자필성이라 했다, 부지런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루에 8~9시간 독서한다. 대웅아 사랑과 인내와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 글 : 김영식 어르신

고려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312호 홍정순어르신

고려요양병원에 처음 입원하던 날

처음 자식들이 노인요양 병원에 가자고 할 때 정말 죽으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고려 요양병원에 와서 보니 정원이 너무 예쁘게 잘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도시에서 매연에 찌든 공기만 마시다가 여기에 와보니 공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말할 동무들도 있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내기는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시설도 잘 지어져 있고, 원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십니다. 한밤중에도 어르신들이 아프다하시면 주사주고 약주고 이 이상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웃으며 친절하신 원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에 말을 전합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써는 여기가 참 좋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고맙게 잘 읽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글 : 홍정순 어르신

해외여행을 시작하다
일본 현지병원 연수를 통해 선진 요양병원 체계를 배우다...

고려요양병원에서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근속직원(개원부터 계속 근무한 직원)대상으로 해외여행를 실시한다. 본원은 직원의 장기근무자를 위한 응원의 일환으로 5년 근속자는 황금열쇠증정과 10년 장기근속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5년 근속자들의 황금열쇠증정은 매년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10주년을 맞이하여 10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10년 근속대상자는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3박 4일간 이동산 행정부장을 비롯해 총6명이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 해외여행지로는 일본의 후쿠오카를 정하였는데 여행과 함께 일본의 선진 요양병원의 견학을 함께 함으로써 여행과 더불어 장기근속자들의 요양병원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데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해외여행이라 이번 해당자들은 알찬 여행이 되기 위하여 함께 사전 미팅을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 여행이 실시되기 전에는 병원에서 기획한 해외여행에 대하여 실감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실제로 여행에 필요한 여권 등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하고 실감한다고 한다.

일본 텐신도 헤츠기병원 전경

세상에 말로 약속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고려요양병원은 미래를 기획하고 하나씩 계획을 실천할 때마다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의 미션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하여 이번 여행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 글 : 이동산 (고려요양병원, 행정부장)

9월 생신자 명단

이 름		음력생신	양력생신
김란자	어르신	7월 11일	9월 1일
박승호	어르신	7월 12일	9월 2일
김귀자	어르신	7월 12일	9월 2일
우병운	어르신	7월 12일	9월 2일
김외출	어르신	7월 13일	9월 3일
김영석	어르신	7월 13일	9월 3일
하말분	어르신	7월 13일	9월 3일
박제성	어르신	7월 13일	9월 3일
문귀자	어르신	7월 14일	9월 4일
서 악	어르신	7월 18일	9월 8일
이나경	어르신	7월 19일	9월 9일
이상규	어르신	7월 20일	9월 10일
김순덕	어르신	7월 22일	9월 12일
김순분	어르신	7월 22일	9월 12일
이귀인	어르신	7월 21일	9월 11일
김순분	어르신	7월 24일	9월 14일
차부식	어르신	7월 24일	9월 14일
김산석	어르신	8월 2일	9월 21일
공동자	어르신	8월 9일	9월 28일
최상용	어르신	7월 31일	

이름	부서	음력생신	양력생신
이호근	진료과	8월 2일	9월 21일
정덕분	원무행정과	7월 26일	9월 16일
장슬기	영양팀		9월 25일
김연옥	영양팀	7월 19일	9월 9일
최영미	1병동	7월 16일	9월 6일
김현숙	1병동	7월 17일	9월 7일
하용애	1병동	8월 11일	9월 30일
정순희	2병동	7월 18일	9월 8일
곽명희	2병동	7월 23일	9월 13일
장영수	3병동	8월 2일	9월 21일
원경미	3병동	7월 14일	9월 4일
최옥례	요양보호사	7월 15일	9월 5일
김현숙	요양보호사	7월 24일	9월 14일

생일 축하해요~